

“매력적인 도시브랜딩”... ‘광주 브랜드 학교’ 첫발

기획 전문가 양성 강좌 개강 7월까지 이론·실습 프로그램 도시홍보 등 역량 강화 기대 강 시장 “광주 기억 상징 기획”

광주시는 지난 2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젝트 강좌 ‘광주 브랜드 학교’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브랜드 학교’는 교육생 36명 모집에 시작디자이너 및 디자인 전공자, 문화기획자, 홍보 분야 종사자, 공직자 등 총 77명이 지원해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개강식에서는 교육생 36명과 강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의 기획은 광주가 된다’를 주제로 도시홍보 특강과 향후 활동계획 등 안내교육(오리엔테이션), ‘광주 도시 리서치’ 팀별 과제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개강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 교육장을 찾아 교육생과 대화를 통해 도시브랜딩과 디자인산업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생의 첫 시작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광주브랜드학교를 통해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형상화한 상징 배지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등 광주 기억과 경험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딩이 기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생들은 오는 7월까지 △도시사물 디자인 △도시언어디자인 △도시경험디

자인 3개의 분야에서 도시브랜딩 기획 이론 및 실습, 조인 프로그램, 워크숍 등 7차 시 수업(35시간)을 이수한다.

수강생들은 광주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지역 콘텐츠를 도시브랜딩으로 디자인하고 도시홍보물도 제안, 매력적인 도시홍보와 도시 브랜딩 기획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부산 영도와 경북 포항의 도시 브랜딩을 주도한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팀이 강사진으로 참여, 도시 브랜딩 디자인 경험과 도시 홍보물 제작 등 현장

감 넘치는 비법을 전달하고 조인(멘토링)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우수 수료생 10명에게 시정 홍보행사와 홍보물 기획 참여기회, 실습 교육 결과물을 사업화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광주의 매력과 경험을 도시브랜딩으로 디자인하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조금 더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임산부·난임·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

전남도가 임산부와 난임부부, 수도권 향우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3종 꾸러미 배송을 시작했다.

임산부 꾸러미 지원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산부 2796명에게 사업비 13억원으로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부부 꾸러미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3000명에게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1인당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의 꾸러미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전남도 자체 신규 사업이다.

수도권 향우 꾸러미 지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향우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향우 1000명에게 사업비 5억원으로 1

인당 연 50만원(자부담 25만원 포함)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임산부를 제외하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신청을 바라는 난임부부는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서 시·군 신청 시 방문·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 향우는 주민등록 등본과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고향(출생지) 시·군에 방문·팩스·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전용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주문해 각 가정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곽지혜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등이 지난 26일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남구가족센터 개관... 사회적 가족도시 ‘성큼’

광산·동구 가족센터도 건립 돌봄사각 해소·육아 나눔터 확충

광주시가 올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한층 더 강화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있고 공동체를 실현할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이 지난 26일 오후 남구 노대동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서인석 시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소(동·남·광산구) 중 한 곳이다.

이 센터에는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센터’ 등이 들어섰다.

광주시는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22억5000만원, 구비 42억5000만원)을 투입 △동구 가족센터(학동 행정복합센터)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광산구 희망플러스가족센터(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개 가족센터 건립한다. 올해는 남구가족센터 이어 5월 광산구가족센터의 문을 연다.

광주시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품앗이

‘삼삼오오 이웃돌봄사업’을 시범 추진해 참여모임 19곳을 지원한다.

동행정복합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도서관 등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놀이공간 및 초등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 현재 9곳인 나눔터를 내년에 2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딩크족·한자녀·다문화·1인 가구 등 가족 유형이 다양해졌고 과거에 가족 안에서 손쉽게 해결됐을 일이 때론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삶이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면서 이런 복합공간은 우리 삶에 형제자매, 이웃사촌이 되고 사회적 가족이 된다. 이처럼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1조2000억 절감 계약심사제 노하우 공유

전남도가 2008년 도입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그동안 총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노하우를 일선 공직자들과 공유했다.

전남도는 26일까지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용역·시공회사, 건설자재 생산기업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심사 연찬회를 갖고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전시관도 운영중이다.

연찬회는 2008년부터 도입된 계약심사제도의 축적된 기법을 공유하고 최근 공사원이 산정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는 매년 계약심사 연찬회 개최

시 지역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59억원의 자재구매가 이뤄졌다. 올해도 도내 제품 홍보전시관 설치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50개의 우수 제품 구매를 담당하는 연찬회 참석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도는 2008년 이후 전남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총 1조236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3212개 제품 1548억원의 도내 제품 구매 실적을 올려 효율적 재정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공공구매로 사회적경제기업 돕는다

광주시가 공공구매로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돕기에 나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광주·전남 공공기관·기업 26곳과 광주사회적경제기업 70여곳이 참여하는 ‘2024 광주 사회적경제 우수구매 상담회’를 연다.

이번 상담회는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우선 구매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기업 등 26개사와 광주 사회적경제 기업 70여 곳이 참여해 사전 1대 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또 SK행복나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물 입점 상담과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국제인증공사의 기업 인증 상담이 함께 열리며, 광주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에스지(ESG) 실천활동의 하나로, 빈용기를 가져오면 친환경세제를 나눠주는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이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성장팀(062-531-66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한국자유총연맹 “오월정신 함께 잇기”

광주·전남·전북지부 5·18 참배 강 시장 “헌법전문 수록 박차”

한국자유총연맹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오월광주 정신을 잇기 위해 광주를 찾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전남·전북지부의 5·18묘역 참배 및 묘비묘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임기주 부총재, 배영모 광주지부장, 정선재 전남지부장, 김소라 전북지

부장, 경북 상주지회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민주영령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강석호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세워진 귀중한 결실이다”며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더는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의 가치

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5·18이 갖는 의의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성숙한 시민,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귀한 손님들이 광주와 5·18묘역을 찾아주셨다. 참배와 더불어 묘비묘기까지 하며 오월정신을 온전히 잇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런 뜻깊은 자리가 계속 이어져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수룩으로 결실을 맺고, 더는 폄훼와 왜곡이 없는 오월정신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45주년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원년으로 삼고 이와 관련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